全國的 耕地整理事業과 타이어工業의 展望

申 大 植

筆者는 1968年 4月 本誌를 通하여 全國的 耕地整理事業과 國內 自動車工業 乃至 타이어工業의 振興에 對하여 우리나라 全般 近代化作業에 對한 管見을 아울러 提唱한 바 있다. 今般 政府는 果敢히 農耕地 整理事業을 局地化로부터 止揚하여 全國的인 大規模 年次 事業으로 擴充斷行키로 한 것이다. 1969年 10月 18日字 發表에 依하면 明年初 發足할 農業振興公社로 하여금 이를 擔當케 하여 1976年 第三次 經濟開發五個年計劃 終了 年度 까지 山間僻地를 除外한 可用面積 5萬 3千町步에 對하여 政府負擔率 85%比重 總投資額 472億 800萬원을 投入하여 70年度 부터 76年度 까지 年間 5~7萬町步의 農耕地를 整理하여 나아갈 計劃으로 되어있는 것이다.

按컨대 過般擧論時에도 論及한 바와 같이 韓國의 近代化 基盤은 어디까지나 農漁村에 있다. 爲先 農業을 工業化하는 課程에 있다 하겠다. 農耕方法이 機械化되어 結局 農業이 近代企業化 됨을 뜻하는 것이다. 農業人은 工業人으로서의 資格을 具備하여야 한다. 農產物 加工 工場의 狹域配置化와 아울러 農業人口는 工業人口와 相關 關係下에 놓이게 되며 農產物의 生產, 運搬, 加工, 消費에 이르기 까지 工業化가 이루어져 國際的인 生產性 向上에 까지 高揚되어야 할 것이다. 언제 까지나 農民이 소를 몰아 밭을 갈며 호미로 김을 매고 지게로 物件을 運搬하는 原始的인 駄力依存의 在來式 營農方法은 手工業의 領域을 벗어 날 수가 없다.

農業의 機械化는 生產費를 節減하고 人力을 縮小하고 均一된 品質의 農產物을 量產할 수 있는 工業的 企業化를 追求하게 된다. 畢竟은 先進農業國에서 보듯이 農地는 現下 農家當 3町步의 上限線의 撤廢가 自然 要求 될 것이다.

如斯한 近代 農業政策의 造成은 무엇 보다도 機械化를 爲한 耕地의 整理에 있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整理된 耕地위에서 四通八達한 農路를 通하여 植付, 肥培, 收穫에 이르기 까지 自由로운 輸送手段이 脣齒輔車의 役割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 나라 農耕部落數를 9萬餘로 보고 今般 政府計劃에 따르면 約 6萬部落이 農耕地 整理事業에 吸收되는 것이니 1次的 最少限 段階로 보아 2屯級 輸送用三輪車를 部落當備置 2臺 平均만 보더라도 12萬臺의 車輛이 所要되어 이에 需要되는 타이어를 臺當年間 6本으로 보아 約 70萬本의 타이어의 新規需要를 갖게 되는 셈이다. 더구나 農耕地規模와 經濟事情 等으로 重機用 타이어 및 大小型의 트럭 二輪自動車 等이 登場할 것을 考慮한다면 實로 타이어의 需要量은 莫大한 量의 新市場을 國內에서 確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農業 工業化의 至上命題가 가로 놓인 우리나라 近代化課程에서 거듭 朴正熙 大統領은 1969年 10月 22日 經濟企劃院에서 月間經濟動向 報告를 받고 農村에 對해서 企業農으로 發展시켜 營農의 機械化를 包含한 近代化에 全力하여 1970年度 부터는 耕地整理를 大大的으로 하되 山地開發은 政府가 基本構想을 세운 다음에 推進하고 企業農과 企業營農을 爲해서는 農地上限制의 撤廢가 또한 必要하다고 強調, 이 問題를 硏究檢討 할 것도 아울러 內閣에 指示한 것으로 알려져 農村의 近代化 進路는 明確히 闡明되었다. **農地는 곧 工場이다.**

우리는 雙手를 들어 이번 政府의 歷史的인 大英斷에 對하여 萬腔의 謝辭와 祝意를 表함과 同時에 이에 關聯하여 生起될 自動車工業의 振興과 타이어 工業에 있어서 莫重한 好影響을 불러 일으키게 될 것을 미루어 볼때 타이어工業前途에 慶賀 할 만한 大盛事가 아닐 수 없다.